

어린이집 대체교사의 직무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최정화¹⁾

요약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의 직무경험을 알아보고 그들이 현장인식과 반성적 사고를 통해 전문성 있는 교사로의 성장을 도모하는지, 그 과정과 의미를 발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A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의 대체교사 3명과 8개월에 걸쳐 심층면담을 하였고, 그들의 수업관찰일지와 문서를 자료로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그들의 경험에 관한 의미를 탐구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대체교사들의 직무경험 형태는 이론과 실제의 차이, 다양한 상황 적응에 따른 역할의 변화와 보람, 현장에 대한 이해와 조력으로 나타났다. 대체교사의 직무경험은 다양하고 폭넓은 어린이집 현장 경험과 이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보다 넓은 안목을 갖게 했으며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긍정적 인식을 구축하게 하였다. 한편 대체교사들의 경험과 변화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사교육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의 필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주제어: 대체교사, 직무경험, 내러티브탐구

I. 서론

교사는 자신의 직임(職任)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된 경험, 즉 직무경험을 한다. 직무경험은 교사생활의 전 과정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이다. 그것은 교사 자신의 교육활동 속에 반영되고 각 교사들의 교육관, 교직관 등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정재성, 2008). 이에 교육적 직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직무경험과 그 유용성에 대한 성찰은 교사 자질 함양과 발전적 개선의 중요성과 관련되어 강조되어 질 수 밖에 없다(이희용, 2007). 특히, 영유아를 대상으로 직임을 수행하는 어린이집교사는 인

* 본 연구는 2014년도 성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1)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간성장의 초기 단계에 인격적인 접촉을 갖는 존재이다. 어린이집 교사의 질은 영유아들의 신체적 성장과 심리적인 성장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집 교사는 또한 영유아들에게 애착관계 및 신뢰감을 심어주는 부모의 대리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역할 수행을 고려할 때 교사의 질적 수준과 그 역할의 적절한 수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은 간과될 수 없다(강란혜, 2006). 어린이집 교사의 역할이 담고 있는 돌봄 및 교육적 특성과 그 내용은 교사의 자질과 상호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거의 전적으로 교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정덕희, 2004).

한편 어린이집 교사들은 요구받는 직무의 중요성과 다양성과는 달리, 과노동과 저임금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며(김영은, 2012; 여성가족부, 2006) 교사로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가 어렵다. 영유아들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다. 거기에는 많은 관심과 희생이 요구된다. 따라서 교사들이 겪는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소진은 영유아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보육현장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별도의 방학이 없으며 월차나 병가와 같은 휴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백선정·김혜금, 2013). 교사의 쉼과 재충전은 보육의 질과도 관련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부재와 보육 현장의 공백을 막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적합한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적절한 인력확보를 통해 어린이집 교사들과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근무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고자 2009년 3월부터 대체교사 지원사업제도를 실시하였다. 일선 어린이집과 그 소속 교사들을 지원하는 대체교사는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일반 어린이집 교사와는 달리, 해당 어린이집의 지원요청에 부응하여 그 직임을 수행한다. 대체교사는 기본적으로 영유아들을 담당하는 각 현장에 있는 교사의 휴가 시 그 직무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체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교사의 재충전과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수행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활동한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3). 원래의 정교사가 수행하는 보육업무를 대체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체교사의 직무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임시적이어도, 그 교사로서의 직임과 역할은 변함없는 연속성을 갖는다. 대체교사는 교사로서 다양한 시설들에서 매주 달라지는 직무수행의 환경과 상황을 접하는 교사이다.

현재까지 대체교사에 관한 연구로는 보육시설의 대체교사 지원 실태와 개선 방안을 연구한 안재진·김문정(2009)의 연구, 대체교사의 지원 효과를 분석한 백선정·김나은(2012)의 연구보고서, 대체교사의 전문성 인식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한 정인하(2012)의 연구 등이 있다. 또한 국비지원과 도비지원 대체교사들의 인식을 비교한 연

구로 백선정·김혜금(2013)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상기한 연구들은 일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지만 양적연구에만 일관되어 있다. 따라서 대체교사들이 현장에서의 직무경험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며 그러한 경험들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측면이 깊이 있게 탐색되지 못하였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체교사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의 경험적 성찰과 그 중요성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론이 중요한 것처럼 그 이론을 토대로 한 현장의 경험적 성찰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들이 반영되어 있는 연구들로 교사의 생애사에 따른 교직경험에 관한 연구(박수미, 2001; 김희연, 2013), 초임교사들이 적응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교직경험의 의미에 관한 연구(장선희, 2008; 한미양, 2008; 김경철·김안나, 2010; 문미정, 2010; 이은희, 2012)들이 있다. 또한 경력교사의 패러다임(paradigm)변화에 따른 충격과 교직경험(신세니, 2011), 교육현장에서의 교직경험과 성장(이성숙, 2003; 염지숙, 2003)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그리고 교직생활 경험에 따른 어려움과 보람에 관한 연구(정정희, 2009; 김경철·김안나, 2010)들이 있다. 이상 열거한 여러 교직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교사들의 교직경험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발달하였고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장의 경험적 성찰과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체교사들은 어린이집의 정교사와는 다른 직무경험을 한다. 매주 다른 시설 과견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과 원장, 교사, 아이들과의 관계성 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한다. 어린이집 현장은 원장의 철학에 따라 운영방식이나 대체교사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해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대체교사들의 현장 경험을 생동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체교사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들을 필요성이 있으며 여러 어린이집의 직무경험을 통해 어떠한 실천적 지식의 형성과정을 경험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대체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장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갈등이 무엇이며, 그러한 갈등과 문제인식을 어떻게 해소해나가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어린이집현장에 대한 심층적이고 실제적인 이해를 갖게 해주는 한편 대체교사들의 직무형편과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한 어린이집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할 때 대체교사가 경험하게 되는 혼란, 당황, 갈등, 기쁨을 대체교사의 시각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경험을 드러내준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체교사의 현장경험과 그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했다. 그로인해 그들이 어떠한 경험을 통하여 어린이집에 적응을 하며 실제적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

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 이것은 대체교사가 각 경험들 속에서 어떤 인식을 통해 유능한 교사로서 자신의 직업에 합당하게 성장·발전하게 되는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대체교사의 직무경험과 이를 통한 어린이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대체교사들과 그 대체 역할의 대상이 되는 교사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이로 인해 본 연구가 대체교사들이 겪는 여러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려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의미있었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들의 직무경험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대체교사직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과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용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은 대체교사의 실무를 이해하는데 발전을 도모하게 하고 현장 경험에 대한 성찰을 거쳐 바른 지식의 추구로 연결되어질 것이다.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체교사의 현장 이야기는 예비 대체교사들에게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과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분석하게 해 줌으로써 대체교사의 직무에 관한 이해와 대체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제공할 것이다. 대체교사의 실제 현장경험에 따른 대체교사직의 바른 이해는 대체교사제도의 활성화와 대체교사들의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 대한 방향을 제공해 주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대체교사가 실제로 어떠한 경험을 하면서 적응하고 협력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직무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의 다양한 경험을 통한 적응과 협력과정은 어떠한가?
2. 어린이집 대체교사로서 갖게 되는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경험을 중요시하며 ‘이야기하기(tellings)’와 ‘다시 이야기하기(retellings)’를 통해 경험적 의미를 밝히는 연구방법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다시 말하면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의 구성에는 삶의 이야기를 살아가기, 삶의 이야기를 말하기, 삶의 이야기를 다시 말하기,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다시 살아가기의

사이에 순환적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Clandinin & Connelly, 2011). 이야기의 순환과정을 통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미가 창출된다. 대체교사의 내러티브적 활동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성장을 통해 가르치는 교사로서 무엇을 느끼고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기다운 성장을 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는 대체교사로서 자신이 처한 다양한 어린이집에서 일상적인 삶을 통해 직무경험을 말하고 다시 말하면서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러티브 탐구가 연구방법으로 적합하며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의 절차는 Clandinin와 Connelly(2000)의 내러티브 탐구인 다섯 가지 탐구관계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인 현장에 들어가기에서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현장을 물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자는 대체교사들이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text)로 이야기 장소에 존재하기이다. 즉 자료 수집을 하며 현장텍스트를 쓰는 일을 생각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기록하면서 자료 수집을 하였다. 또한 대체교사의 삶에 관한 경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처한 환경과 실제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 연구에 결합하도록 노력하였다. 세 번째,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수업관찰일지, 수업계획안, 가정통신문과 같은 문서와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한 면담 자료를 사용하였고, 현장 텍스트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중요한 문장이나 단어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야기 맵(map)을 구성하였다. 네 번째, 현장 텍스트로부터 연구 텍스트로의 단계에서 본 연구는 원 자료를 수렴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성적 주관성, 심층적 기술, 충분한 기간 동안의 집중적 관찰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텍스트를 구성하면서 내용의 타당성을 위해 연구 참여자의 검증을 하였고,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 1명 및 동료 연구자들과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다. 마지막 연구 텍스트를 쓰는 과정에서는 대체교사들의 직무 수행 시 처한 환경과 영유아 및 교사, 원장들과의 관계적 경험을 이야기 하였다. 대체교사의 직무경험과 그 경험이 주는 의미로는 교사로서 자기다운 존재적 성장을 만들어가는 역할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A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들과 안면이 있었던 연구자는 어느 날 대체교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체교사들은 어린이

집 현장의 경험들과 어려웠던 점들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평소 대체교사의 직무경험에 관심이 있었던 연구자는 대체교사들에게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3명의 대체교사들은 자신들의 직무 수행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연구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식사모임과 함께 심층면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세 명의 대체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것은 이들은 지속적으로 대체교사로 근무하였으며, 직무 수행 시 현장에서 경험한 일들을 관찰하고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 명의 대체교사들은 어린이집 현장에 대한 관심이 다른 대체교사보다 더 많은 편이며, 수집된 수업관찰일지가 비교적 세밀하게 현장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교사경력 순)

연구 참여자	성별	연령	대체교사 경력	교사 경력	전공	학력
김빛나	여	31	3년	5년	유치원 정교사 2급 보육교사 1급	준학사
이기쁨	여	48	2년	3년	보육교사 1급 청소년지도사	학사
박하늘	여	43	2년	2년	보육교사 1급	석사

주: 본 연구의 교사 명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대체교사들의 심층면담이 시작된 2012년 5월부터 2012년 12월 까지 8개월 걸쳐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로는 수업관찰일지, 심층면담을 전사한 내용, 수업계획안, 그리고 가정통신문과 같은 문서 등이었다. 수업관찰일지는 대체교사가 과 견업무를 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 기록해 놓은 자료이다. 교사들이 영유아들을 지도하는 모습이나 어린이집 분위기 등을 관찰한 모습이 그대로 기록됐다. 이러한 어린이집 관찰은 연구 참여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었고 무엇 때문에 갈등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심층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자들과 면담을 매월 1회씩 2시간에서 2시간 30분정도 가졌다. 이곳 대체교사들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간담회를 가지기 때문에 간담회가 열리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만남을 가졌다. 만남의 장소는 식당이나 커피숍 등 조용한

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 이루어졌다. 초기 면담에서는 반 구조화된(semi-structured)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고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면담 내용은 동의를 구한 후 녹음기로 녹음하였고, 집에 와서 바로 전사하였다. 의미파악이 잘 되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전화나 e-메일을 통하여 문의하였다. 문서로는 어린이집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가정통신문이나 주간계획안 등을 수집하였다. 주간교육계획안은 어린이집마다 지역적, 사회적인 맥락과 영유아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주간계획안을 보면 어린이집 분위기와 특성을 대략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대체교사가 어린이집으로 파견되어 근무할 때에 환경과 하루 일과 활동 등을 이해하도록 돕는 참고 자료로 활용 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 적용한 대체교사의 직무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분석 준거는 사회적 상황, 시간성, 내러티브탐구의 삼차원적 공간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이 내러티브 분석준거는 내러티브의 질적 분석과 다시 이야기하기의 의미를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 즉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나타나는 내러티브 패턴(pattern), 줄거리, 주제 등을 찾으면서 연구 텍스트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염지숙, 2003). 본 연구에서는 현장 텍스트인 연구 참여자의 수업관찰일지 자료와 심층면담 전사 자료를 반복해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적 경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세그멘팅(Segmenting)을 하였다. 그리고 개방적 코딩(coding)을 사용하여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문장이나 단어를 기입하였다(김영진, 2008). 수집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소주제를 포괄하는 중간 분류체계를 찾고, 중간 분류주제를 포괄하는 대주제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논리적 연계성, 분류적 체계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재구성된 이야기들로부터 대체교사의 직무경험에 대한 의미를 찾았으며,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였다. 자료 분석에서 도출되는 제(諸) 문제를 상의하기 위한 과정으로는 연구 동료와 질적 연구를 강의하는 교수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여 수정·보완 하였다.

도출된 주제로는 ‘대체교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 ‘대체교사의 초기경험’, ‘수업지도의 어려움’, ‘영유아들과 교사 및 원장들과의 관계’, ‘하루일과’, ‘대체교사에 대한 인식’ 등이 드러났는데 이것은 1차 분류주제였다. 1차 분류 주제를 포함하여 시간상의 흐름으로 추출된 영역별 현장 텍스트를 다시 반복하여 읽으면서 텍스트들의 유사점과 공통적인 것을 묶고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관련 영역에 중복하

여 분류하였다. 다시 도출된 주제로 ‘하루일과의 불균형’, ‘보여주기식 교육’, ‘교사의 태도’, ‘원장의 철학’, ‘근무환경의 어려움’, ‘교사교육’ 등이었고 이것을 다시 ‘대체교사 되기’, ‘대체교사로 살아가기’라는 두 가지의 대주제로 범주화하였으며 비교, 대조 통합, 순서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경험적 지식과 관련된 이론이나 선행 연구들을 읽으며 이미 도출된 주제를 다시 구성하였다. 이것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대체교사의 직무경험 과정을 통해 본 의미해석을 위한 범주

범주	특성	하위범주
대체교사 되기	① 인간관계 (만남, 주변인물과의 관계)	*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지식(③⑦) *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협력 (②⑥) * 사회적 상황과 현실에 대한 이해 (①④⑤)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사교육 (④⑦)
	② 직무수행의 어려움(적응과 협력) : 정보부족과 상황변화	
	③ 이론과 현장의 괴리(갈등) : 현장이해와 돌아보기	
	④ 다양한 사회적 배경의 영유아 (공감과 보람: 전문적 지식)	
대체교사로 살아가기	⑤ 대체교사의 정체성(이해와 보람)	
	⑥ 수업시범(적응과 협력)	
	⑦ 교사지식(다양한 상황에 대한지식)	

Ⅲ. 대체교사의 직무경험 이야기

1. 낯선 곳에서의 시작과 만남

대체교사들은 지원을 나가기 바로 전 주의 금요일,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e-메일을 통해 지원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안내와 배정을 받는다. e-메일에 기재되어 전달된 내용은 지원대상이 되는 해당 어린이집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대체교사가 담당할 연령과 학급이다. 지원 첫날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을 찾아가는 것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하였다. 대체교사는 가능한 한 자신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배정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대체교사는 배정지와 관련하여 한정된 인력과 지원 신청을 하는 다양한 어린이집으로의 파견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때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1시간이상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정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낯선 곳을 처음 찾아가야하는 과정 속에서 대체교사들의 첫날 아침 출근은 긴장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장 및 기존 교사의 자세한 안내와 정보 전달은 대체교사들의 신속한 적응을 돕고 역할수행을 원활하게 해준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채우는 데에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쏟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빛나 교사의 경험은 이러한 예를 보여준다.

휴가 간 선생님이 자세하게 적어 놓고 가신 거예요. 밥 늦게 먹는 유아. 오전 간식에서 뭐 먹으면 안 되는 유아, 그런 유아들 이름까지 세세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우유도 유아들 이름 적고 애들은 우유 한 팩 다 못 먹으니가 컵에 반만 따라주세요 하는 것 까지 적어 놓은 거예요

(2012년 6월 29일 김빛나 교사 심층면담).

대체교사는 사전 정보가 부족한 낯선 장소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시설의 적절한 안내와 협조가 필요하다. 지원받는 어린이집 교사의 배려는 대체교사에게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것과 같았다. 권미숙(2004)은 동료교사의 부정적인 교직원, 아동의 특성 파악 부족, 지원·안내가 없는 조직풍토는 초임교사에게 있어 교직적응에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대체교사들은 초임교사는 아니지만 다양한 시설에 지원을 나가는 업무적 특성으로 인해 초임교사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2. 적응과 협력: 원장, 교사들과의 관계

대체교사가 지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원 어린이집의 교사 지도 방식 및 교수 활동과 분위기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은 다르게 적용된다. 즉 교사의 역할에 있어서 서로의 교육철학과 그 견해에 차이점이 존재함으로 인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의 지원이 요구된다. 어린이집 현장은 원장의 교육 및 운영철학이 많이 반영된다. 특히 시설이 소규모일 경우에는 조직체계보다는 원장의 개인적 역량과 개성이 좀 더 반영되는 측면이 있었다. 즉 어린이집의 교육방식이나 가치관은 원장의 교육적인 철학과 더불어 다소 차이가 있었다. 대체교사는 이러한 점을 빠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맞추어 적응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교사와 김교사는 지원 업무를 하면서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교육과정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하원하기 전 까지 계속 활동했어요. 원장님은 자유놀이 시키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방치가 아닌데..그 마음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 같아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뭔가 준비를 해요. 밀가루 점토를 가지고 오기도 하세요... 밀가루로 놀이를 했어요. 6시까지 계속 가워질도 하고 내가 활동지도 많이 뽑아가고 그랬어요.

(2012년 10월 26일 김빛나 교사 심층면담).

경험을 갖고 있는 대체교사는 돌발적 요구상황 속에서 기민하게 적응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의 놀이는 발달수준 및 개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체교사는 영유아들의 놀이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적절하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유아의 놀이상황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적절하게 개입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대체교사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면,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박교사는 여러 어린이집에 파견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연령과 학력의 배경을 가진 보육교사들을 만나게 되었다. 대체교사의 근무 특성상 파견되어 근무하는 어린이집의 다양성으로 인해 박 교사는 처음에 가면 그곳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태도나 지도 방식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기존 교사의 지도방식대로 지도할 때 짧은 기간을 대체하는 대체교사로서의 유연성을 가지고 융통성 있게 대처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박교사가 만난 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만 1세반 교사로 다른 한 명의 교사와 함께 두(two) 담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박교사는 담임교사의 직무교육으로 인해 다른 한 명의 만 1세반 교사와 함께 근무를 하게 되었다. 교사는 오전 자유선택놀이활동 시간에 영아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였고 놀이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말과 행동으로 유도하였다. 다음은 교사가 영아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어떻게 지도하는지에 관해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

실외 놀이터의 미끄럼틀이 햇볕을 받아 뜨거웠다. 교사는 물걸레를 가지고 나와 열심히 닦아 뜨겁지 않도록 하였다. 영아들은 나와서 미끄럼틀을 신나게 타기 시작하였다. 교사들의 이런 모습이 내게는 큰 감동이었다. 어찌 보면 날씨도 덥고 미끄럼틀도 뜨거우니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 비록 잠깐이지만 영아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2012년 7월 2일 박하늘 교사 수업관찰일지)

영유아들은 교사가 직무수행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며, 교사는 유아에게 멋진 선생님이로 인식될 때 가장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다(염지숙, 2003). 보육교사들 가운데에는 긍정적으로 영유아들과 상호작용하며 대체교사에게도 적극적으로 피드백(feedback)을 해주는 교사들이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현장을 잘 이해하고 영유아들에 대한 애정과 지식, 경험 속의 성찰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교사와 대체교사의 협력적 태도는 교사 상호 간에 전이 되어 동질감과 유대감을 증대시키며 결국, 보육의 질적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대체교사의 성실함은 어린이집 전체의 분위기에도 공명의 효과를 끼치게 하였다. 대체교사는 가끔 영역별 놀이가 미흡한 환경을 접하기도 하는데 이교사는 이러한 환경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영아들을 보면서 놀잇감을 제시하며 놀이를 유도하였다. 질서가 흐트러진 상황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체념하지 않고 교실현장에서 예측치 못한 상황을 그 상황에 맞는 교육방법으로 지도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교사들은 이교사의 모습을 통해 대체교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결핍에 대한 지적과 불만제기 보다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대처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내가 갔던 곳이 그랬다니깐요. 교실은 굉장히 넓은데, 매일 3, 4세 유아들이 9~10명 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근데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띠 블록을 가지고 낚싯대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처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들이 안 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선생님? 처음에는 엎고 쏘고 뛰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요

(2012년 10월 26일 이기쁨 교사 심층면담)

이교사는 현장의 교사들과 같은 방식으로 영유아들을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최대한 어린이집의 기준에 맞추어 적절한 지원을 하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자 하였다.

현장 경험이 적은 초임교사나 신입교사는 대부분 경력교사들을 통해 어린이집의 직무에 적응을 하며 배우게 된다. 그러나 경력교사가 적절한 멘토링(mentoring)을 할 여유가 부족하거나 자기만의 고착된 방식을 맹신 할 경우에는 초임교사나 신입교사가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자신에게 유익했던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박교사는 그러한 상황에 있던 초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 받게 되었다. 박교사는 적절한 기준 없이 자신의 주관적인 방식대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경력교사의 부적절한 수업방식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동료 경력교사에 비판적으로만 접근하면 초임교사와의 갈등이 더 증폭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보육교사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로 생각했다. 그리고 참고할 만한 책 소개와 주의 집중 할 수 있는 몇 개의 손유희 시범을 보였다. 또한 영유아들을 지도하는데 있어 바람직한 통제방법에 관해서도 설명해주며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원 나간 시설의 초임교사가 “선생님, 사실 휴가 간 선생님이 수업을 했을 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영아들도 산만했었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니까 안정되고 질서가 잡혀 보였어요. 저는 영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같이 근무하는 선생님께 여쭙어 보아도 그냥 보면 안다고 하니까 답답해요.”하고 물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궁금한지 물어보았더니 “영아들을 통제하는 것도 그렇고 율동이나 손유희, 수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바로 근무를 했는데 근무한 지 아직 두 달 정도 밖에 안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었어요.

(2012년 8월 31일 박하늘 교사 심층면담)

경력이 항상 능숙함으로 연결되진 않으며 열정이 지식을 도외시 하는 경우도 있다. 미숙한 교사가 비구조화 되고 비계획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유아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경계해야 한다(Ingram, 1979). 또한 발달연령이 서로 다른 두 반을 통합적으로 지도해야 하는 경우, 교사의 지도능력이 부족하고 철저한 수업계획도 없이 교육을 하게 되면 나름의 소신과 열정이 무색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대체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지원업무를 하면서 때로 의도치 않게 교육과정에 대한 시범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현장교사의 어려움을 듣고 공감해 주는 정서적인 지원자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3. 대체교사의 역할과 보람

김교사는 다양한 어린이집을 경험하면서 대체교사들은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또한 대체교사를 처음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들의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김교사는 이러한 인식을 통해 최대한 어린이집의 형편과 사정에 부응하여 공감해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대부분 제가 맞춰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 여기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맞추니까 갈등은 별로 없었어요. 지난번 갔었던 곳은 문을 닫고 수업하고 싶기는 했지만, 원장님이 문을 못 닫게 하니까 아 여기는 대체교사를 처음 써서 원장님이 불안해서 그런가보다 하니까 이해가 되고.

(2012년 7월 27일 김빛나 교사 심층면담)

대체교사가 사소한 문제에 신경을 쓰면 파견 나간 어린이집의 상황에 적절한 공감능력을 갖지 못한다. 김교사는 자신이 알고 적용하던 교육방식대로 수업을 지도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다. 평상시 자신이 해결하던 방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공감적 접근과 반성적 사고를 통해 어린이집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때로는 자신의 방식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어린이집의 상황과 현실을 그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공감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았어요. 내 방에서 편하게 수업을 하고 싶는데 “선생님 이걸 이래요. 저건 저래요”하니까. 처음은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이 되어서 ‘아 여기는 이렇구나. 이 어린이집은 이런 걸 원하는구나’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2012년 7월 27일 김빛나 교사 심층면담)

이교사는 대체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어린이집의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이 자신이 나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한 생각은 원장을 포함한 지원나간 어린이집 교사들을 더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작용하였다.

만 1세는 1:5인데 두 명은 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7명은 볼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8명이잖아요. 선생님 내가 8명 해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루에 응가를... 기저귀를 다 차고 있어요. 아직 아기잖아요. 초임교사가.... 잘 모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좀 힘들었어요.

(2012년 6월 29일 이기쁨 교사 심층면담)

이교사는 다양한 곳의 근무 경험을 통해 한 곳에서 있을 때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 한 곳에서 근무를 했을 때에는 자신이 그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익숙한 방식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대체교사로 근무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의례 그렇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다른 시각으로 다가왔고 보육교사들의 근무여건이 힘들다는 것에 더 공감하게 된 것이었다. 이교사는 대체교사 업무를 하면서 다른 보육교사들을 돕기 위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접하는 어린이집도 자신이 계속 근무했던 어린이집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 하였다. 이교사는 자신이 맡은 일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도울만한 다른 일이 있는지 살피면서 나름대로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이교사의 모습을 보고 지원을 나갔던 어린이집 교사들은 진심으로 감사하였다. 그들의 바쁘고 힘겨운 일과를 공감하며 배려와 협력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이었다.

김교사는 주변에서 느껴지는 반응에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맡은 일들에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 교사와 원장이 처음에는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하다가도 김교사와 일주일간 지내다 보면 고맙다는 인사를 하게 되었다. 대체교사를 이용함에 있어 원장이 처음 가지는 생각은 불안감이었다.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것과 그에 따른 여파들, 학부모의 대체교사에 대한 생각, 영아들의 낯가림, 이에 따른 안전사고 등이 염려로 다가

오는 것이었다. 처음에 가졌던 이러한 염려는 대체교사를 자주 이용하면서 고마움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냥 고마워하는 거 같기는 해요. 처음에는 불안해하는 거 같았지만. 과연 우리아이들을 잘 돌봐줄까?, 과연 엄마들한테서 말이 안 나올까 하고 걱정하다가 일주일 지나면 고맙다고 해요.

(2012년 7월 27일 김빛나 교사 심층면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편지를 써 놓고 가셨어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 일주일 휴가를 갈 수 있어서 마음이 너무 편했다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저도 편지로 선생님도 휴가 잘 다녀오셔서 충전하시고 힘내시라고 써놓고 왔거든요. 그럴 때 뿌듯하죠.

(2012년 6월 29일 김빛나 교사 심층면담)

김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대체교사 덕분에 쉴 수 있어 감사하다고 할 때 뿌듯함을 느꼈다. 이러한 것들은 김교사로 하여금 대체교사의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보람이었다.

영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보육교사들에게 기본적인 마음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충전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어린이집은 방학이 없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다. 보육교사에게 주어지는 여름휴가도 교대로 근무하면서 휴가를 내야하고 한 달에 일회 월차가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쓸 수가 없다. 이러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보육교사는 아파도 쉬기가 어렵다. 또한 영아들은 낮가림이 심하고 친숙하지 않으면 잘 따르지 않는 특성이 있어 누군가 대신 근무하기란 쉽지가 않았다. 교사들도 마음 편하게 영유아들을 맡기기란 쉽지가 않으며, 영유아들이 잘 지낼지에 대한 염려 때문에 교사 자신도 마음 놓고 휴가를 쓰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월차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이라도 쉬려면 얼마나 생각이 많아지고 눈치가 보여요. 그런데 다니다 보면 대체교사제도가 생기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어서 자기가 하루 또는 이틀 동안 휴가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아무튼 고맙대요. 뭐가 그리 고마울까요.

(2012년 6월 29일 이기쁨 교사 심층면담)

이교사는 쉽게 쉴 수 없는 교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러한 일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로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4. 현장이해 그리고 돌아보기

대체교사를 신청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중에는 낯선 교사가 영유아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의식하여 대체교사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었다. 원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만한 일이다. 왜냐하면 교사가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세심함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대부분은 입소문으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원장들은 부모의 반응에 민감할 수 있다.

원장의 다소 불안한 심리가 교사와 영유아들을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끌어 가는 경우들이 있었다. 교사는 원장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 그저 순응하는 자세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보육현장의 현실을 알면 원장과 교사들이 처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언어발달이 미흡한 영아들은 언어대신 울음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울음소리를 우연히 청취한 부모의 부정적 반응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한다. 현장이 그렇다면 대체교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어느 선까지 자신의 역할이 가능한 지를 민첩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교사들은 직무를 위해 여러 곳을 경험하면서 영유아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에 다양한 차원의 역학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 부모들이 영유아의 발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들은 영유아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반응하였다. 이러한 부모들의 태도는, 보육교사가 자신의 역할로써 영유아들에 대한 기본생활습관지도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박교사는 이러한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현장의 교사들과 함께 고민을 하게 되었다.

교사는 영유아들을 사랑으로 잘 이끌어 가는 것이 자신의 교육관이었는데 요즘은 한계를 느낀다고 하였다. 부모들은 그런 것들은 기본이고 그 이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생활습관 교육이 집에서 잘 안 이루어져 어린이집에서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다.

(2012년 7월 4일 박하늘 교사 수업관찰일지)

원아들 대부분이 만 2세인데도 걸어오는 아이가 없어요. 모두 유모차를 타고 오고 기저귀를 많이 착용하고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배변 연습을 열심히 시켜도 부모가 (가정에서 연계하여)배변훈련을 하지 않고 기저귀를 채워 놓고 있어서 어린이집에서 애써 연습시킨 것이 소용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영아들이 아침에 등원을 하면 세수도 하지 않고 와서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세수를 시키는 거예요.

(2012년 9월 28일 박하늘 교사 심층면담)

부모는 어린이집에 자신의 양육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방침과 교사를 신뢰하고 따라올 때 교사들은 자신의 역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신의 이해와 만족도에 따라 요구하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다(박정빈·김은심·유선희, 2010). 부모와 원장을 비롯한 어린이집 교사들 상호간의 친밀한 관계는, 서로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연계하여 신뢰를 구축하며 나아갈 때 풍성해진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의 영유아들에게 더욱 관심과 애정을 쏟고 집중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것이다. 대체교사는 이러한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직무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적절하게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한 곳에 소속되어 다닐 때는 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에게 좋게 말하고 포장 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씩 다니다보니까 때때로 진실이 보이더라고요. 세세하게 그런 것들을 쓰면(업무평가 작성보고 시) 센터에서도 어린이집을 발전시킬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2012년 11월 30일 이기쁨 교사 심층면담).

이교사는 예전에 당연히 하던 것도,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었다. 오랜 기간 한 곳에만 있다 보면 익숙함 속에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다. 이교사도 자신이 한 곳에 소속되어 근무할 당시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새롭게 인식 하게 되었다.

김교사도 대체교사로 근무하면서 매주 다른 곳에 나가다 보니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관심 속에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종종 경력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거 보면서 배울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지도하는구나... 여기는 너무 편하고 분위기가 좋다. 매주 다니면서 새롭게 경험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 것 같아요.
(2012년 7월 27일 김빛나 교사 심층면담)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지식은 그 폭을 넓히고 생명력을 얻는다. 새로운 인식은 더욱 폭 넓은 시각과 애정으로 보육현장을 바라 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게 하였다. 교사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합리적인 전문가이며, 교사 자신의 사고, 판단, 의사결정에 의해 안내된다고 했다. 즉 사고가 행동을 이끈다는 것이다(정덕희, 2004). 대체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갖는 다양한 어린이집 및 동료교사와 영유아들에 대한 경험은 그 직무 수행 능력의 성숙으로 연결되었다.

대체교사들은 매주 낯선 곳으로 파견 근무를 감에 따라 다양한 시설과 교사들을 접하고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매주 가는 새로운 만남과 경험을 통해 대체교사에 대한 인식부족과 낯설고 한시적인 만남에 대한 경계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했다. 대체교사들은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파견 어린이집이 대체교사들을 자세히 안내하고 기존교사들이 협조적인 태도로 수용하는 것이 상호간에 중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교사 및 원장의 성향에 따라 대체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에도 차이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것들이 대체교사들에게 다양한 근무환경의 조건이 되고 있었다. 김빛나, 이기쁨 교사는 이러한 점에서 교사, 원장과의 관계에 갈등을 경험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적응하면서 현장교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며 조력해주는 정서적인 지원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대체교사들의 현장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해와 조력 속에서 발생된 교사들의 감사 표현을 통해 보람을 갖게 되었다. 대체교사들은 다양한 현장 경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반성적 사고를 하였고, 전에는 나름의 익숙함 속에서 바라보았던 현장을 더욱 폭넓은 시각과 애정으로 바라보며 직무수행의 성숙으로 연결해 나아가게 되었다.

IV. 대체교사의 직무경험이 주는 의미

이 장에서는 앞서 연구 성찰에 의해 언급된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의 경험을 근거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지식

대체교사가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지식은 말 그대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적합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기존의 관념과 경험을 고집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배소연(1993)은 교사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결 방안은 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중심으로 지식을 구하고, 영유아를 바르게 이해하며, 자신의 현장교육 경험을 참고로,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적절한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실 상황을 고려하며 최선의 적용 점을 찾는 것이다. 이것은 상황에 적합한 경험적 지식을 풍부하게 해주는 과정이다. 여기에서 배제할 것은 자신의 경력과 이론적 지식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다. 기존의 관념과 경험이 경험적 지식에 도움을 줘도 불구하고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적절한 상호작용이 되지 않음

면 적합성이 약화될 수 있다.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의 상황에 적합한 지식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교사는 기본생활습관 교육과 일일보육계획안에 충실히 따르기 보다는 영유아들의 자유로움에 편중된 곳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일과의 계획은 유아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해 교사가 계획하지만, 당일의 진행과정에서 기후나 여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의 자유놀이 중심이라는 진행은 실제에 있어 교사의 지도나 계획 없이 단순한 돌봄에만 그치는 느낌이었다. 현장의 보육교사들은 이것에 익숙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다 보니 원장과 더불어 그러한 방식이 나름 영유아들을 고려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그러한 운영방식에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

여기는 수업이 약하더라고요. 내가 동화책 들고 가면 꼭 읽어주거든요. 여기는 동화책 읽어줄 분위기가 잘 안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동화책을 잘 찢는다고 비닐카트로 막아놔요. 접근성이 약해지죠. 청결상태 깨끗해요. 매일 그렇게 청소해요. 아이들 위생에 신경 쓰더라고요. 아이들을 예뻐하긴 해요. 선생님들은 항상 이렇게 놀이중심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 줄 안다고...

(2012년 11월 30일 이기쁨 교사 심층면담)

구원회(2007)는 교사가 경험하는 모든 실천적 지식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경험 속에서 잘못 형성된 편견이나 가치관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영유아들의 발달에 적합한 통합되고 균형 잡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실행하는 능력이 약하면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자신이 알고 있다고 해도 전체적인 분위기나 흐름에 따라 실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대체교사들이 지원을 나가면서 느꼈던 갈등은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교육 현실에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과정에 발생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다양한 기관에서의 교육과정을 근거로 자격증을 수여 받기 때문에 교사의 배경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원장이나 교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지식을 형성하고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느냐에 따라 어린이집 분위기가 형성되는 면이 있었다(이선미, 2006).

교육적 측면 보다 원활한 운영의 관점에서 어린이집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들의 발달과 연령에 합당한 교육의 측면보다는 보여주기 식의 교육을 하게 될 수 있다. 영유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외적인 차원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다. 즉, 잘 먹이고 잘 재우기는 하지만 하루일과에 대한 균형 잡힌 계획이 부족한 경우가 있었다. 물론 일일보육계획안에 따른 균형 잡힌 교육을 하는 곳이 많지만 어떤 곳은 이

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교사들은 직무경험을 하면서 “왜”라는 관점에서 “어떻게”라는 관점으로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되었다. 보육현장의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상황과 모습에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 대입하려고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적용하고 대처 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자기 나름의 역할을 상황중심으로 감당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애쓰게 되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실천적 지식은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암묵적인 지식이며 교사의 지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다(심정선, 2012).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것과 그곳의 현장 분위기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최대한 즐겁게 수업을 하는 것이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대체교사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리고 그 적절한 상황을 고려한 접근 속에는 반성적 사고를 통한 현실적 고려와 성찰이 깊이 배어들어야만 했다. 이러한 상황적 대처는 불합리한 타협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오히려 현장 속에서 최선을 도출해나가려는 발전적 의지의 표출이며 보육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과 교사들에 대한 현실적인 애정으로 연결되어 지는 것이다.

2.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협력

교사의 교수행위는 단순한 원리에 국한된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교실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을 적절하게 반성하는 과정을 거쳐 검증되고 축적된 지식을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자발적이고 고유한 행위를 말한다(김자영·김정호, 2003).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장에서 문제에 직면한 교사는 실천의 상황적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식들을 고안하여 대처해 나간다(강현석·박재희, 2007). 즉 교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일반화하기보다는 교사의 지식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제상황에서의 맥락을 숙고한다(이춘자, 2003).

화요일에는 견학이 있었는데 아침에 비가 온다고 취소를 한 거예요. 나는 당연히 비가 중간에 그쳐서 갈 줄 알았는데 이미 엄마들한테 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용 칠판을 놓고 그림 수수께끼를 했어요. 사물이 있으면 일부분만 이렇게 그려요. 유아들이 손들고 맞추는 거예요. 못 맞추면 조금 더 그리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예요. 유아들이 완전 재미있어 해요. 그림퀴즈도 했고요.

(2012년 6월 29일 김빛나 교사 심층면담)

이것은 현장의 문제를 최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율적인 태도와 능력을 형성하게

한다. 대체교사가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될 때 현장의 교사 및 원장과의 관계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발휘하게 된다. 대체교사는 직무 수행 시 원의 실정과 상황에 맞는 보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협력을 통해 원장, 교사, 대체교사의 3주체는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있게 그 직무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

이곳에서의 근무기간 동안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신임 선생님까지 모두, 서로를 이해하며 적절하게 배려하였고, 나 스스로를 생각해볼 때, 자발성을 갖고 협력하도록 그분들이 내게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2012년 7월 16일~20일 박하늘 교사 수업관찰일지)

대체교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은 실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며 또한 주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추구 속에서 적응과 협력을 위한 초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교사는 직무특성 상 새로운 장소와 사람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늘 따르지만, 때로 그러한 특성이 여러 경험과 적응력을 갖추도록 해주며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임할 때 자율성을 갖고 그 소임에 적합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교사의 실제적 지식의 인정은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전문성의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민정, 2012).

3.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경험적 지식

다양한 어린이집에 지원을 나가게 되면 예측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을 만나게 된다. 대체교사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적 분위기에 따라 형성된 교사들의 태도와 영유아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대체교사에게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이해와 경험적 지식이 요구 되어 진다.

박교사는 대체교사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가정의 영유아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지역에 따라 다문화 가정, 결손 가정, 저소득 가정, 보호기관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에 속한 영유아들이 있었다. 이러한 만남은 박교사에게 충격을 주었다.

어린이집에서 만난 만2세의 영아는 나이가 많고 학력이 낮은 아빠와 고국을 그리워하며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 외국인 엄마 사이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에서도 산만하여 수업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혼자놀이를 주로 하였다. 영아는 언어능력과 인지능력도 떨어졌고 엄마하고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았다. 담임교사도 이 영아에 대한 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2012년 3월 14일 박하늘 교사 수업관찰일지)

이러한 현실에서 교사들의 노력은 실로 눈물겨웠다. 박교사는 이러한 영유아들을 처음 대면했을 때 그와 같은 사실들을 알지 못해 영유아들이 보이는 행동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었다. 이 영유아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면서 왜 그러한 모습과 행동을 보이는지 좀 더 이해할 수 있었다. 김희연·김은숙(2013)은 영유아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활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이 영유아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여러 특성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돌봄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체교사는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영유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장 보육교사와의 직무에 대한 이해와 협력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가 필요하였다. 더 나아가 다양한 영유아들의 심리적 상태를 살피고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지적 인식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박교사는 다양한 상황에 있는 영유아들을 경험하면서 그들과의 생활을 통해 행동특성과 심리에 대해 좀 더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적 지식은 예측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도와주었다(박계신, 2012). 나아가 다양한 경험이 폭넓은 현장의 이해를 일깨워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대체교사직의 중요성과 그 역할의 효용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현장 상황에 대한 인식은 그 대상이 되는 영유아나 교사, 학부모 혹은 원장 등을 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그 처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면에서 대체교사의 직무 경험은 보육현장에서의 이해와 협력이 어떠해야하며 왜 필요한지를 일깨워 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속에서 사회적 역할은 증대되고 현실화되어진다. 대체교사는 자신이 속한 직무현장에서 다각적인 연결 속에 있는 관계들을 고려하며 사회적 공헌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권혁진, 1995).

4.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사교육

대체교사들은 직무경험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지식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경험하였다. 이교사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갈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어린이집에 지원을 나가게 되면 다 알아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도 있었다. 처음에는 당황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이교사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한 현실을 잘 인식하게 되었고 더 많은 조력과 이해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입체 북, 색종이와 같은 교구를 개인적으로 준비하여 필요시에 수업을 위해 사용했다. 또한 기존 교사의 교육 방식이 미숙한 경우에는 영유아들을 교수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이거나 영유아들과

놀이 활동 시의 상호작용 모습을 적절하게 보여주려 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곳 중 영유아들을 잘 교수하는 곳이나 교사가 있으면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곳에 가서 시범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수업 잘 하는 곳이나 선생님 있으면 잘 보고 따라 배우거나 견본 좀 달라고 해서 나중에 다른 곳에서 필요할 때 써먹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책도 보게 되더라고요.

(2012년 10월 26일 이기쁨 교사 심층면담)

이교사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음에도 적절한 연구를 통해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교사가 보육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의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그것을 지원해주는 전문적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영아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김교사는 대체교사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 울고 떼쓰는 영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몰랐다. 그러나 현장에서 영아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서 영아는 유아와 달리 먼저 달래주는 것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사실일 수 있지만 미혼인 김교사에게는 반복적 경험과 관찰에서 나온 결과이다. 이론적 지식은 현장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대학교 때 영아에 대해 배우기는 했지만 솔직히 와 달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대체교사하면서 (현장에서)몸으로 부딪히다 보니 배운 거 같아요. 이론을 통해 0세의 특징을 안 것이 아니라 하다보니까 아 이렇구나 하면서 몸으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2012년 7월 27일 김빛나 교사 심층면담)

유아랑 영아랑은 완전 별개인 것 같아요. 많이 틀려요. 대체교사 일을 하면서 만 1세 아이들의 특성과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수업도 조금 달라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알게 된 거 같아요.

(2012년 7월 27일 김빛나 교사 심층면담)

김교사의 시범은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김교사는 지원을 나간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요청받게 되었다. 김교사는 영유아들을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원장이 산만한 행동을 하는 영아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적절하고 신중하게 자문 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근무하다 보면 교사나 원장이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대체교사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 때에 따라 대체교사들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한 교사지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식을 갖추고 전문성을 발휘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재교육을 통해 자기 능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한다(Patterson, 1980).

대체교사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름으로 지원업무를 나가게 된다.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면서 예측치 못한 상황들과 마주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안재진·김문정(2009)의 연구에서도 대체교사의 교육과 관련된 개선 사항으로 상황별 대처방법 등 실제상황에 기반하여 논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대체교사는 단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파견 어린이집에 도움과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체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사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들이 직무 수행 시 겪는 여러 경험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과정의 의미를 탐색한 것이다. 대체교사들은 직무 초기에 다양하게 주어지는 보육현장에 대한 적응과 협력의 어려움을 느끼었다. 그러나 여러 교사와 영유아들 및 원장과의 만남과 관계성은 현장교육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력하도록 해주었다. 새로운 만남 이면에 동일한 보육 현장이라는 지속성을 동반한 어린이집 현장에 대한 이해와 협력은 대체교사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숙고하게 하였으며, 보육현장에 대한 전체적인 안목을 형성하게 하였다. 또한 반성적 사고의 확장으로 이어져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게 하는 과정이 되었다. 연구결과 대체교사들의 직무경험이 주는 의미는 효과적인 대체교사의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지원받는 어린이집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대체교사들은 처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낯선 환경에 매주 적응해야 하며 파견된 어린이집 대부분에서 대체교사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직면하게 된다. 그로 인해 직무현장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어린이집을 경험해 나가면서 보육현장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으며, 원장과 교사들이 현장에서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 및 협력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대체교사의 직무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다. 현장에 대한 이해와 관계성을 통한 교감의 확대는 직무수행 능력과 적절한 직무태도에 발전을 가져왔고 대체교사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기여를 하였으며 교사들과의 관계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켰다.

또한 휴식과 충전이 필요한 교사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과 보육현장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 및 자신의 성숙과 발전을 깨달으며 보람을 갖게 되었다.

대체교사들은 직무 수행을 하면서 다양한 원장, 교사와 영유아들을 만나게 되었다. 대체교사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교사로서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하고 독특한 만남과 관계성은 보육현장을 보는 시각의 변화를 갖게 해 주었다. 종전에 갖고 있는 다소 피상적인 것을 탈피하고 좀 더 폭넓고 전체적인 시선을 갖게 되었다. 대체교사가 감당해야 할 직무현장인 여러 어린이집은 원장의 교육철학이 많이 반영되며 그러한 상황에서 융통성 있는 대처능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백선정·김나은(2012)은 그들의 연구결과에 따라 대체교사의 자질로, 다양한 상황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김빛나교사의 경우, 처음엔 자신의 교육철학을 견지하려 했으나 다양한 어린이집을 경험하게 되면서 각 현장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신의 역할을 조절하고 감당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또 한편 실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론적 지식의 단순한 적용 이상으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조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적인 방면에서 교사들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대체교사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어린이집과 교사들을 경험하였으며 그러한 경험은 자신을 돌아보며 그때마다의 실제적 역할을 인식하는 직무수행의 성숙으로 연결되었다.

대체교사들이 주는 직무경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지식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대체교사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가운데 갈등을 경험하였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다양한 기관에서의 교육과정을 근거로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배경이 다양하였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 지식을 형성하고 자격을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어린이집 분위기가 형성되는 면이 있었다(이선미, 2006). 따라서 어린이집마다의 교육철학이 다르며 대체교사에게 기대하는 수준과 역할도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체교사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적응하기 보다는 현장 분위기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능력과 지식이 필요하였다. 즉 현장 속에서 반성적 사고를 통한 현실적 고려와 성찰이 선행된 적용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협력이 요구된다. 대체교사들은 자신의 독특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토대로 현장의 문제를 최선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율적인 태도와 능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장 중심적 지식은 교사로서의 새로운 태도와 역할을 갖게 하였다. 교사의 교수행위는 단순한 원리에 국한된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다.

자신을 적절하게 반성하는 과정을 거쳐 검증되고 축적된 지식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자발적이고 고유한 행위이다(김자영·김정호, 2003).

대체교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는 가변적이고 다양한 상황의 현장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였다. 백선정·김혜금(2013)은 대체교사에게 필요한 자질로 어린이집 보육활동·계획·하루일과 그리고 수업 등에 예기치 않는 변화가 생겼을 때 재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 정보와 자료가 적음에도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수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대체교사들이 이러한 능력을 형성하고 현장에 적용하도록 하려면 대체교사를 단순히 단회적인 도움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보육동반자요 효과적인 협력자로 지속적 영향을 나누고 서로 힘써 협력하는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인하(2012)는 대체교사들의 전문성 인식 하위요인 중 자율성이 가장 낮은 이유로 주변으로부터 전문직으로서의 적절한 대우와 존경을 받지 못하며 영유아의 발달과 지식을 알고는 있으나 원의 사정과 실정에 맞추어야 하는 특성상 현장에 적용할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대체교사가 자율적인 의사결정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체교사의 협력을 받는 어린이집에서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원장, 교사, 대체교사는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있게 그 직무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때로는 대체교사가 솔선하여 그러한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와 경험적 지식이다. 현장 상황에 대한 인식은 그 대상이 되는 영유아나 교사, 학부모 혹은 원장 등을 따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체교사는 다각적인 관계들을 고려하며 사회적 공헌을 추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권혁진, 1995). 대체교사들은 직무경험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관계성을 생각하게 되었고, 어린이집이 처한 현실적인 입장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다. 원장들의 태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안감과 경계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학부모의 요구 및 태도와 연결됨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입소문으로 원아모집이 되는 소규모 시설은 대체교사를 이용함에 있어서 학부모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박진주(2014)는 원장들이 학부모가 담임교사 휴가로 인해 대체교사가 투입되는 것을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대체교사의 존재를 숨기거나, 학부모에게 사전에 안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경계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했다. 대체교사들은 직무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좀 더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서 어린이집이 직면한 사회적 상황을 여러 각도로 이해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한 면에서 대체교사들은 더욱 다양하고 포괄적인 안목의 지적 인식과 이에 대응하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힘써야 한다.

넷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사교육이다. 대체교사는 사전정보가 부족한 어린이집 지원 업무를 나감에 있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지식을 필요로 한다. 대체교사들의 상황판단과 수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적인 학습은 물론, 직무경험에 관한 반성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사교육이 필요하다. 즉 대체교사가 교육현장에서 경험하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반성적 사고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다. 대체교사직의 수행과 관련한 사전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안재진·김문정(2009), 정인하(2012), 박진주(2014)등의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안재진·김문정(2009)은 대체교사 교육이 각 센터별로 이루어지며 교육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관리자 및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제각기 시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체교사 교육을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교육 내용은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할지라도 반드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실제적인 사례와 현장을 접목한 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사교육을 도모하는 가운데 대체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관한 대화나 자료 또는 전문가와의 대화, 동료교사와의 협동장학과 같은 방법이(구원희, 2007)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한 제언과 후속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교사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전반적인 대체교사 직무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아직도 대체교사의 직무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파견 보육교사라는 식의 이해만으로는 대체교사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확한 역할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파견업무를 나감에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하다. 정교사의 연가를 대처하는 역할이라는 인식만을 가지고는 보육현장에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를 위한 실제적인 대체교사 매뉴얼이 필요하다.

둘째, 대체교사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관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교육 및 홍보이다. 대체교사들이 직무수행을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대체교사에 대한 부정확하고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인식이었다(안재진·김문정, 2009; 정인하, 2012; 백선정·김혜금, 2013, 박진주, 2014). 이에 대해 연구내용들이 있으나 여전히 대체교사에 대해 보조교사 수준의 인식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대체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은 대체교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대체교사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장의 대체교사에 대한 인식 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체교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로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대체교사 제도 리플렛 제작을 통한 홍보나 원장교육 시 대체교사 제도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 등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대체교사의 교사교육과 이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인 대체교사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갖고 현장을 관찰하며 반성적 사고를 하였다. 그러나 모든 대체교사들이 이와 같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교사에 대한 질적인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기초 자료 조사와 실제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 자료나 지식을 지원하고 관리해야 한다. 일례로 현행하는 생태교육이나 미술퍼포먼스와 같은 식의 교육 자료는 한곳에서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근무하는 대체교사 상황에서는 실행하기 어렵다. 또한 근무평점이 우수한 장기근속 대체교사의 경험을 토대로 한 수업사례 발표나 동료장학과 같은 형태의 교육은 대체교사의 실제적인 업무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한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후에는 다양한 지역의 대체교사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 배경적 연구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대체교사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역할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강현석·박재희(2007). 교실 수업 활동과 경험에 대한 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중등교육연구**, 56(3), 377-414.
- 구원희(2007).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고찰. **한국교원교육연구**, 24(1), 299-321.
- 권혁진(1995).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2, 245-269.
- 김경철·김안나(2010). 공립유치원 소인수 학급교사의 교직생활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지**, 15(1), 1-34.
- 김영은(2012).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소진과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6), 57-76.
- 김영천(2001). 질적연구. 서울: 문음사.
- 김자영·김정효(2003).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이론적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20(2), 77-96.

- 김희연·김은숙(2013). 어린이집 교사의 생애사 연구: 김교사 이야기. **교육인류학연구**, 16(1), 25-63.
- 문미정(2010). 보육시설에서 경험한 멘토링 기능과 초임교사의 교직적응과의 관계.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계신(2012). 반성적 수업시연과 분석활동에서 나타난 예비유아특수교육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탐색. **특수교육**, 11(1), 215-240.
- 박정빈·김은심·유선희(2010). 영아반 교사가 직면하는 어려움. **변형영유아교육연구**, 12(4), 65-87.
- 박진주(2014). 서울시 어린이집 대체교사의 경험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소연(1993). 유아교사의 실천적 지식과 교사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 **교육학연구**, 31(5), 153-171.
- 백선정·김나은(2012). 경기도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 백선정·김혜금(2013). 대체교사 제도에 대한 국비지원과 도비지원 대체교사의 인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209-228.
- 신세니·박선미·조희숙(2011). 생태유아교육과정으로의 전환에서 겪는 경력교사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생태유아교육학회지**, 10(2), 27-57.
- 심정선(2012). 보육교사 전문성 증진을 위한 실천적 보육장학 모형 개발 및 적용.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안재진·김문정(2009). 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 사업의 실태와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 2(2), 48-70.
- _____ (2009). 보육시설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및 운영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여성가족부(2006). 보육시설 노동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분석. 여성가족부.
- 염지숙(2003a). 교육연구에서 내러티브 탐구의 개념, 절차, 그리고 딜레마. **교육인류학연구**, 6(1), 119-140.
- _____ (2003b). 2부 주제발표 및 토론 : 제 2주제 교사-신나는 선생님/좌절하는 선생님: 유아교사들의 교직경험: 현장으로부터의 목소리. 한국유아교육학회 2003 연차 학술대회, 63-91.
- 이선미(2006). 한국 유아교사교육의 과제와 방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4), 429-449.
- 이은희(2012). 사립유치원 종일반 초임교사의 교직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춘자(2003). 웹 토론방의 수업사례 토론에 나타난 유아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전략 분석. **한국교육연구**, 9(2), 40-64.
- 이희용(2007). 한 고등학교 국어 교사의 성장경험 - 자기 이야기-. **교육인류학연구**, 10(2), 131-169.
- 장선희(2008). 유치원 초임교사의 교직적응을 위한 멘토링 사례 탐색.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덕희(2004). 반성적 사고에 기초한 유아 교사 교육 탐구. **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8(2), 173-199.
- 정인하(2012). 어린이집 대체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재성(2008). 초등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교육과정 재구성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정정희(2009). 공립유치원 단일학급 교사의 교직생활이야기.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중앙보육정보센터(2013). 대체교사 지원사업 2013년 사업관리 매뉴얼. 중앙보육정보센터, 1-57.
- 한미양(2008). 사립유치원 초임교사의 교직적응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용희·박은혜·김희진·이지현(1997). 이야기 나누기에 나타난 유아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탐구: 유아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유아교육논집**, 17(1), 67-85.
- Clandinin, D. J.(1985). Personal practical knowledge: A study of teacher's classroom image. *Curriculum inquiry*, 15(4), 361-385.
- Clandinin, D. J. & Connely, F. M.(1988). *Teachers as curriculum planners: Narrative of experien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_____.(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Ingram, J. B.(1995). **교육과정 통합과 평생교육**. 배진수·이영만 공역. 서울: 창지사. (1979년 원저 발간)

·논문접수 4월 16일 / 수정본 접수 6월 16일 / 게재 승인 6월 22일

·교신저자: 최정화, 이메일 yjysy624@naver.com

Abstract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Job Experiences of Childcare Substitute Teachers

Jeonghwa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ild-care substitute teacher's specific job experience and to analyze their recognition for its experience through reflective thinking and reflection on the child care field. It also tried to understand process that the substitute teachers developed their ability as a teacher and its meaning as well.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 substitute teachers in 'A' Child Care Information Center. Data were collected and extracted from substitute teacher's individual interviews, documents, and the classroom observation journals. A narrative analysis was adopted to reveal the meaning of that experie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experience of day care substitute teachers allowed them to broaden their understanding of other teachers and the director through work experience in a wide variety of courses.

Second, they tended to have four different meanings of the experience as a substitute teacher in the child care center; "proper knowledge of the situation", "voluntary cooper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role and empathy in a variety of experiences" and "continuous and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a variety of experiences of substitute teachers gave the importance of reflective thinking and practic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child care field.

Key words: child-care substitute teacher, job experiences, narrative inquiry